

## 예수님을 말하라

사도행전 5:33-42

사람은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일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뉴스, 종교, 취미, 건강 등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 놓고 다시 들어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 나, 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드다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던 사람도 망했습니다.(행 5:36) 후에 나오는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행 4:1-4) 이 세상의 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 있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행 4:20-21) 예수님을 말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 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대상, 말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맺혀지길 축원합니다.

### 1.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말했다는 이유로 매 맞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이런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행 5:40-41)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 할 때에 사랑으로 이야기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지,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지, 업신여기는 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언어는 사랑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엿보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ESV)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옳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다가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결혼을 프로포즈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나 만 불짜리 반지 준비되었어. 나 연봉이 이십 만 불이야. 그러니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내 가진 것 없지만 죽도록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사람 중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에도 말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 2. 말하는 대상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사도들은 성전에 있는 자들, 집에 있는 가족과 이웃, 손님들까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카멜레온 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 자기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동물입니다. 풀밭에서는 녹색이 됩니다. 땅에서는 땅 색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꾸며서 도무지 구별을 못하게 하는 동물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추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구별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조금 착하든 아주 못됐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지금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 3. 말하는 내용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행 5:42)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고, 똑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으러 공항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처음 뵈는 분은 그 분에 대한 사진이나 여러 설명을 듣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하시다는 목사님을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목사님을 기다렸고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간 것 같은데도 그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퀸즈장로교회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자기가 어느 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로 모시고 오면서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말투가 너무 점잖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차로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 그 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보면서 그 분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보면서 그 분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든지 그 분에 대해 술술술 그리고 확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 방해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20)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10월 28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 뿐 만 아니라, 인생전체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합시다.

### ○ 나눔의 시간 ○

1.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예수님을 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3.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10/28 총동원 주일을 위해 작성한 초청대상자가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